

##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정기선\*\* · 한지은\*\*\*

본 연구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남녀 국제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과정을 스트레스유발 생애사건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원)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810명과 남성결혼이민자 2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 분석결과, 여성결혼이민자와 남성결혼이민자 모두가 결혼이주를 하면서 기대했던 생활수준 향상의 욕구가 충족될수록,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일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는 특히 가족생활적응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은 것에 비해, 남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수준은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단어: 국제결혼이주, 문화적응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증, 정신건강

### I. 들어가는 글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이민자들이 단일민족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으며,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5년간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특성과 결혼이주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의 한국생활실태와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려는 탐색적 연구가 주

\* 이 논문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8년 연구직 「연구직 우수연구활동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이며, 2009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제결혼이주와 정신건강”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을 수정하는데 유익한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가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kschung@gfwri.or.kr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hanji\_82@hotmail.com

류를 이루었다면(민경자, 2003; 설동훈·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이순형·문무경·최연실·이숙정·정하나·우현경, 2006;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 2007 등), 최근에는 결혼이민자 집단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그들의 출신국가, 국내 거주지역에 따라 한국 사회 적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적용수준을 비교분석하는 심층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이선, 2008; 설동훈·윤홍식, 2008; 정기선, 2008; 차승은·김두섭, 2008). 또한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 지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되고 있다. 초기 연구들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이해와 의사소통능력(설동훈 외, 2005 & 2006; 왕한석·한건수·양명희, 2005), 문화차이 지각과 갈등(왕한석 외, 2005;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부부관계와 시부모관계(김오남, 2006; 한건수, 2006), 이웃관계, 취업과 경제생활수준,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등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가족생애주기가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에 들어가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늘어감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로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부모자녀관계, 결혼이민자 본인은 물론 자녀의 정체성 확립,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발달, 보육시설과 학교생활 적응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곽금주, 2008; 김민정, 2008; 송미경·지승희·조은경·임영선, 2008; 안효자, 2008; 이영주, 2008; 이승은·서현, 2008; 조영달·윤희원·박상철·최영인, 2006). 이와 함께 한국어습득과 문화이해, 기본생활지식과 정보 습득 등 초기적응단계를 거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국민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회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이선·장혜경·김혜영·양명희·최은영, 2007).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용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차원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혹은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의미하는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로서 연구되어 왔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Myers and Diener, 1995;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예순, 1999; 고정자·김갑숙, 1999). 우리가 결혼이민자들이 국내 이민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정신건강(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반드시 짚어보고 가야할 부분이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이민자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아울러 정신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리적 부적응(psychological distress)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설동훈 외, 2006; 차승은·김두섭, 2008).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의 한 단면을 그들의 심리적 적응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문화적 소외감 지각, 삶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이민자들의 이주지에서의 적응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Birman and Tran, 2008).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단기간 내 국제결혼결정과 이민절차를 거쳐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낮은 한국기족의 일원으로 살게 되는 이 과정이 상당한 심리적 문화적응을 요하는 스트레스유발생애사건(stressful life event)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는가를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 혹은 정신건강상태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 중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요인들(stressor)이 그들의 심리적 적응을 어렵게 하는지, 또 어떤 요인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체계는 외국인 배우자가 남성이나 여성이냐에 따라 가족생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차별적인 역할기대와 적응부담을 느끼도록 하며, 그로 인하여 상당히 다른 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남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수준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검토

해외이주에서 이민자들은 본국에서 익숙했던 생활의 모든 것이 이입지의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변화, 곧 적응하기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심리적으로 우울, 불안, 분노, 소외감, 주변화된 느낌을 경험하거나 심리적 요인에 의한 생리적 변화(psychosomatic symptoms)나 정체성 혼란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Berry & Kim, 1987; Birman and Tran, 2008). 이처럼 문화적응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혹은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이라고

정의한다(Groves, 1967; Berry & Kim, 1987 재인용). 이때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빚어지는 문화변동으로서, 처음에는 집단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레드필드가 제안한 개념이지만(Redfield, Linton, and Herskovits, 1936), 요즘은 개인수준의 현상을 지칭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된다(Berry, Kim, Minde & Mok, 1987).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문화적응과정을 겪는 모든 이민자들이 심리적 부적응, 즉 정신건강 상에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한다(Bhugra, 2003). 그러므로 어떤 요인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기여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원(stressor)과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심리적 부적응(심리적 디스트레스, psychological distress) 간을 매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시도한다(Berry et al., 1987). 이들 요인 중에는 집단적 속성을 가진 것도 있고 개인적 속성을 가지는 것도 있다. 집단적 속성을 가진 요인으로, 이주한 사회가 다문화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인지 동화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인지에 따라 이주자의 정신건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화주의사회로 이주한 사람들보다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민자 집단의 성격이 자발적 이주자집단(immigrants)인지, 어쩔 수 없이 이민을 선택한 난민집단(refugees)인지, 혹은 주류사회에 적응하기를 강요받는 원주민 집단(natives)인지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 이민자들이 난민이나 주류문화에 적응을 강요받는 원주민들보다 불안, 우울, 과민성향, 심인성 신체증 등으로 측정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이주라 하더라도 유학생처럼 일시적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영구이민자들보다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지만, 난민이나 원주민들보다 많지는 않다고 한다(Berry et al., 1987). 세 번째로는 문화적응을 경험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어떤 문화적응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차이가 난다고 본다. 즉, 이민자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성향과 주류사회와 어느 정도 접촉하고 참여하려고 하는가와 관련된 변인이다. 이민자집단(개인)의 출신국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입지의 주류문화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려고 하는 동화전략(assimilation), 자신의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주류문화와 접촉하려는 통합전략(integration), 자기문화를 고집하면서 주류문화와 접촉을 회피하는 분리전략(seperation)과 차별이나 배제를 이유로 주류문화와 관계 맺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주변화(marginatization)전략 등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가 다르

다는 것이다(Berry et al., 1987; 차승은·김두섭, 2008).

다른 한편,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속성으로서 이주자의 인구학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이 있는데, 성, 연령, 교육수준, 인지성향(cognitive style), 이주 전 다문화경험, 이입지 언어능력, 접촉경험 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ry et al., 1987). 대체로 여성 이민자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반복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엄격하게 총화된 사회일수록, 성역할 기대가 두 문화 간 차이가 클 때 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Berry et al., 1987, Berry, 1997; Zolobina, Basabe, Paez, & Fumham, 2006; 오성희·박기환, 2007). 이민할 당시 이민자의 연령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민을 가는 경우 현지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Berry, 1997; Zlobian et al., 2006).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전에 이입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할 수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입지에서 문화적응을 스트레스원으로 보기 보다는 도전이고 기회로 보는 인지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Berry et al., 1987). 이입지 거주기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주초기보다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상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커지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기에 들어간다는 U형 관계를 주장한 연구가 있는 반면(Berry, 1997), 초기에는 어려웠다가 점차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다(Huhr & Kim, 1990). 이민 현지에서의 사회적 참여 변인들 가운데 언어사용수준,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교육수준,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도 적게 느낀다(Berry, 1997; Berry & Kim, 1987; Zlobina et al., 2006). 특히 남성의 경우 취업상태나 직업만족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이었다(김병석, 2000; Huhr & Kim, 1990). 이민동기가 싫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회피동기)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를 수 있는데, 회피동기로 이민을 한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오성희·박기환, 2007). 또한 이민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아진다(McKelvey & Webb, 1996; 오성희·박기환, 2007 재인용). 오성희·박기환(2007)은 호주에 이민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민전 기대와 현실 부응도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사

회복지서비스, 정치적·제도적 요인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기대에 부응할수록 심리적 적응도가 높고, 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은 사회적 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고, 삶의 질, 생활환경 및 교육 등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일치할수록 심리적 적응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가족, 친구관계 및 종교생활과 같은 관계적 요인은 남녀 모두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입지 문화와 접촉(교육, 취업, 이입지 언어 지식과 사용, 대중매체 접촉 등)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Berry et al., 1987).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문화적응이 일어나기 이전단계에 관련된 요인과 문화적응 과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전자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성격특성, 사회적 지위, 이전의 문화접촉경험, 이민동기와 기대, 출신국가와 이민한 국가 간 문화적 거리, 난민들의 경우 이주 전에 겪은 정신적 외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 후자로는 이주지에서 교육이나 언어습득, 취업이나 기타 사회활동을 통하여 이주지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것과 같은 인지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거주기간, 문화적응책략, 대처,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부정적 생활사건, 가치충돌 등이 개인적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공동체적 요인(이입지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적 또는 적대적 태도), 구조적 요인(인종차별), 문화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Leavey, Rozmovits, Ryan & King, 2007; Fumham & Bochner, 1986). 예를 들어, 버만과 트란(Birman and Tran, 2008)은 미국에 정착한 베트남난민들이 미국사회에서 겪는 심리적 적응정도는 이주 전에 겪은 정신적 외상과 이주 후 언어구사능력, 동일시 정도, 행동적 참여정도를 통하여 측정된 문화적응(acculturation) 및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s)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레비와 그 동료들도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이주 전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Leavey et al., 2007),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왜 다른 집단보다 정신건강상에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지를 연구하면서 이주민의 심리적 안녕감(정신건강)은 이주 자체와 상관이 없는 이주 전 본국에서의 경험<sup>1)</sup>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민자의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적응 연구로는 1980년대 중동 현지 건설현장에 근무했던 중동취업자, 1990년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동남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체에 근무하는 한국인 관리자와 같이 해외 일시취업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정

1) 예를 들어, 이주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족문제, 질병, 가족원의 사망 등의 생애사적 경험(life events), 이주를 일종의 '도파'로 선택했는가 아니면 '모험'으로 선택했는가 등.

기선, 1994 & 1999; 석현호·정기선·장준오, 1998; 석현호·이정환·이혜경·정기선, 2007). 이들 연구에서는 현지 작업장 상황에서의 직무스트레스원, 다문화 작업장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원, 가족과 장기간 이별로 인한 가족스트레스원 등이 해외일시취업자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원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상호작용효과(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외로 이민 간 한국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 현지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적응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으며(오성화·박기환, 2007; Huhr & Kim, 1990; Han, 1999; Jon, 1997; Min, Moon & Lubben, 2005 등), 이들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성별, 학력, 이민동기, 현지어 사용수준, 가구소득, 취업과 직업만족도, 이민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부응정도, 사회적 지지 등이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국제결혼 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매우 드문 편인데(설동훈 외, 2005; 김연수, 2007), 차승은·김두섭(2008)은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들을 대상으로 출산경험과 경제활동여부,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문화정체성이 강한 정도에 따라 우울증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 III. 연구의 분석모형

이상의 기존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설명할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최근 다문화담론을 이끌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기는 했지만, 국내에 정착하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부부도 꾸준히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국제결혼이민자는 제3세계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 여성과 남성들이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심리적으로 적응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첫째, 개인적 요인, 둘째, 국제결혼이주과정과 관련된 요인, 셋째, 한국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원(가족생활적응스트레스원), 넷째 생활인으로서 사회

2) 경기도 거주 남녀 결혼이민자의 결혼이주 및 한국생활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기선 외(2007), 정기선(2008)을 참조할 것.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원(사회생활적응스트레스원), 다섯째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망(사회적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적 적응으로서 건강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여성결혼이민자와 남성결혼이민자를 분리하여 구성할 것이다. 한국 가정에서 아내, 어머니 또는 며느리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에 요구받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 아버지 또는 사위로서 역할을 부여받는 남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원)과 이들 변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었던 개인적 요인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이주당시 연령과 교육수준, 출신국가,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이 결혼과 함께 국내에 이주할 당시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50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보다 나이든 연령층일수록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습득이나 한국문화 이해력이 높을 수 있으며 한국 사회 적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민자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 한국 문화와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그런 차이는 이민생활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우리가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타문화를 이해하는 정도는 매우 일천하여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가 한국 사회와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다를 것이며 그것이 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출신국가를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수준을 결정짓는 한 변인으로 본다. 결혼이민자가 가정의 현재 가구소득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분석에 포함시켰다(회귀분석모형I).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국제결혼이주과정 관련 요인으로 한국거주기간, 이번 국제결혼이 초혼인지, 재혼인지의 여부(결혼유형), 부부연령차, 결혼 전 배우자정보 가운데 허위인 것이 있었는지, 한국이민을 통한 경제수준 향상의 기대가 충족되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회귀분석모형 II). 일반적으로 부부가 초혼인 경우에 비해 재혼인 경우에는 결혼생활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적응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혼이민자들 역시 부부가 초혼으로 만나 가정을 꾸린 경우에 비해 재혼으로 이루어진 경우 적응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국제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부부간 연령차가 통상적인 한국인 부부의 연령차인 2~3세보다 훨씬 큰 데,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은 평균 7~11년 정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은 37세 정도로 밝혀지고 있다(통계청, 2009). 부부간 연령차가 클수록 부부간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차이까지 중첩적으로 적응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자들의 국제결혼 과정이 결혼 전 배우자와의 충분한 교제기간이 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결혼중개업체와 같이 상업적인 중매인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혼 후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는 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제3세계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본국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민에 대한 기대가 실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는가 하는 것은 이들 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외국인 남성의 경우 배우자를 소개받게 된 경로를 보면 친·인척이나 친구 또는 선후배소개로 만나거나 일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결혼 전 배우자 정보가 허위이기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는 남성 결혼이민자의 분석모델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앞서 문헌검토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이민자들과는 달리 한국이민과 동시에 한국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앞서 가족생활을 먼저 접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 친인척관계에 적응부담을 일차적으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가족생활에 있어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유발 요인(가족생활적응스트레스원)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회귀분석모형 III).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부부관계만족도, 부부생활에서 문화차이지각, 남편의 부인에 대한 통제, 남편의 폭력,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경험 등을 살펴볼 것이며,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자녀, 시부모, 친정부모 일로 인하여 고민한 경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설명변인으로 살펴볼 것이다.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부부관계만족도, 부부간 문화차이지각, 이혼고려경험, 자녀, 본인부모나 장인장모 일로 인한 스트레스경험, 가족경제문제로 인한 고민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네 번째 사회적응스트레스원 모형(회귀분석모형 IV)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즉 사회참여 및 활동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앞서 기존 연구검토에서

이입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민자들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먼저 현재 한국어수준, 지역사회 내 각종 공공기관이용 경험, 한국사회가 이민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한국어를 포함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 취업과 일에서의 만족정도 등을 사회적응스트레스원으로 포함시켰다.

다섯째 분석모형은 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사회적 지원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회귀분석모형V). 이민생활에서 가족이나 친지 뿐 아니라 이웃이나 직장동료들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각종 정보를 포함한 도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음은 이미 기존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웃과 가깝게 지내며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본국에 있는 가족과 자주 연락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단, 남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으로부터는 사회적 지지는 설명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 분석모형은 앞서 언급한 설명변인들 가운데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과 결혼이민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독립변인에 포함시켜 통합분석모형(회귀분석모형 VI)을 구성하였다. 이 통합 회귀분석을 통하여 앞에서 고려한 설명변인들이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고유하게 기여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IV.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수집한 표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정기선 외, 2007). 표집방법은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적과 거주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확정하고, 인구 80만 이상 대도시 4곳, 중소도시 14곳, 공단도시 2곳, 군단위 농촌 4곳 등 31개 시·군 중 24개 시·

군에서 얻은 명단을 표집틀로 하여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계통확률표집하였다. 조사는 각국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남녀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배우자, 시부모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810명과 그들의 한국인 배우자 425명, 외국인 남편 203명과 그들의 한국인 배우자 10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인 부인들 가운데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출신 부인들을 조사하였으며, 외국인 남편은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 남편들을 조사하였다.

## 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혹은 심리적 문화적응)는 정신건강 혹은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평가도구인 SCL-90-R의 90개 문항들 가운데 우울증척도에 포함되는 8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Derogatis, 1977; 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설문은 지난 7일 동안 외로움, 기분이 울적함, 울기를 잘함, 기분이 울적하거나 침체된 기분이나 허무한 느낌이 들,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거나 장래 희망이 없는 것 같음,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등과 같은 경험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묻고 전혀 없다면 1점, 약간 있다 2점, 웬만큼 있다 3점, 꽤 심하다 4점, 아주 심하다 5점으로 한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들 8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alpha$ )이 여성결혼이민자 .89, 남성결혼이민자 .91로 매우 양호하였다.

설명변인 중 국제결혼이주특성과 관련하여 결혼 전 남편에 대한 허위정보(남편정보속임)는 결혼 전에 남편에 관하여 들었던 이야기가 실제 사실과 달라서 부부갈등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8개 항목-남편의 결혼경력, 재산, 직업, 학력, 소득, 건강상태, 나이, 기타 등-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항목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민기대충족은 현재 생활수준이 본국에서의 생활수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를 5점리커트척도(훨씬 낮아졌다 1점~훨씬 높아졌다 5점)로 측정하였다.

가족생활적응스트레스원 가운데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이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 부부사이의 친밀감, 부부의 성생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부부간의 대화 및 부부관계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5점척도로 물었으며, 이들 6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alpha$ )은 여성결혼이민자 .90, 남성결혼이민자 .91로 매우 양호

하였다. 남편통제정도는 “남편이 생활비 또는 용돈을 거의 주지 않거나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의처증 증세를 보이거나 신분증을 빼앗고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하거나 폭언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8항목의 강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지를 묻고 그런 행동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부부간에 문화 차이 지각은 한국인 남편과 살면서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문이 무엇인지를 묻고 이 질문에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면 0점, 어느 하나라도 느끼는 경우는 1점으로 측정하였다. 남편의 폭력경험은 지난 1년간 부부싸움 중에 남편에게 맞는 적이 있는 지로 물었으며, 혹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는 지를 물어서 이혼고려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문제, 자녀일, 친정부모 또는 장인장모 일, 시부모 또는 본인부모 일로 인한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는 지를 4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로 측정하였다.

사회생활적응스트레스원 가운데 결혼이민자의 현재 한국어수준은 거의 이해를 못한다(1점)에서부터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각종 기관이용경험은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외국인지원단체,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 7개 기관들 가운데 지난 1년 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관을 합산하여 측정하였으며, 교육서비스이용경험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한국생활안내,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이해를 위한 교육,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한국요리강습, 컴퓨터/정보화 교육 서비스 가운데 이용한 적이 있는 서비스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단체나 모임 참여 정도는 사교 및 친목모임, 종교단체 모임, 외국인노동자 또는 결혼이민자 지원단체모임, 여성단체나 기관들 중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 경우와 현재 일에서 만족을 얻는 정도를 ‘일만족더미’변인들로 측정하였는데, 일에 대해 매우 불만족이거나 불만족인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하고, 미취업인 경우, 일에 대한 만족도에서 그저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거나 매우 만족하는 경우를 더미변수로 리코딩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관련 변인으로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총수)’은 한국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배우자, 자녀, 시부모, 한국인 이웃이나 친구, 한국에 있는 친정식구, 한국에 있는 본국인 친구나 동료, 한국에 있는 제3국인 친구나 동료,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가, 성직자, 한국어교실 교사, 기타 등에서 선택하게 하고 이를 합산하여 측

정하였다. ‘이웃지원’은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을 보아줄 것을 부탁한다, 경조사에 참석한다,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준다,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한다”는 다섯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자주하는 지(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1점~매우 자주하고 있다 5점)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본국가족지원’은 본국에 있는 가족과 얼마나 자주 전화나 편지 혹은 e-mail교환을 하는 지를 6점척도(거의 연락하지 않는다 0점~거의 매일 5점)로 측정하였다. 신체적 적응은 응답자의 건강상태를 5점 리커트척도(매우 좋다 1점~매우 나쁘다 5점)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조선족이 31.5%로 가장 많으며, 한족(20.7%), 일본(13.1%), 베트남 (12.8%), 필리핀(8.3%), 몽골(6.9%), 태국(6.7%)순이다. 남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적은 중국 조선족과 한족이 각각 47.8%, 19.2% 포함되어 있으며, 파키스탄 15.8%, 방글라데시 17.2%이다.<sup>3)</sup>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3.4세이며, 남성결혼이민자는 여성보다 6세정도 많은 39.5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남편들의 평균연령은 약42세이며, 남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인 부인들의 평균연령은 36.9세이다. 결혼이민자의 평균 교육수준을 보면 남성이 11.7년, 여성이 11.5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취업중인 여성결혼이민자는 30.2%이며, 남성은 거의 94%가 취업중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약40%내외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중 가구소득을 모르는 사람이 9.4%(76명)이나 된다.

3) 조사당시 전국 대비 경기도 거주 남녀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정기선 외(2007) 제2장을 참조할 것.

&lt;표 1&gt;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부인)	남성결혼이민자 (외국인남편)
출신국가(외국인남편)		
중국조선족	255 (31.5%)	97 (47.8%)
중국한족	168 (20.7%)	39 (19.2%)
일본(파키스탄)	106 (13.1%)	32 (15.8%)
베트남(방글라데시)	104 (12.8%)	35 (17.2%)
필리핀	67 ( 8.3%)	
몽골	56 ( 6.9%)	
태국	54 ( 6.7%)	
본인연령(평균)	33.4세	39.5세
배우자연령(평균)	41.8세	36.9세
본인교육수준(평균)	11.5년	11.7년
취업률	30.2%	93.6%
가구소득(월200만원이하 %)	39.0%	41.3%
사례수	810명	203명

## 2. 조사대상자의 출신국적별 한국이주와 국제결혼 특성

<표 2>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이주와 국제결혼 특성을 출신국적별로 보여준다. 일본 부인들의 경우, 36%가 1995년 이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거주기간이 평균10년으로 가장 길다. 반면, 베트남부인들의 경우 76%가 2004년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으며, 중국 한족 부인들 중 58%가 그러하다. 남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출신국적별 입국시기의 차이가 여성결혼이민자들만큼 크지는 않으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남편들보다 중국출신 남편들이 좀 더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많은 편이다. 한국에 오게 된 동기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결혼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전체 76.4%인데 비해, 남성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51%정도 된다. 특히 베트남이나 필리핀 부인들이 다른 나라출신들보다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비율이 높으며,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출신 남편은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가 중국 출신 남편들보다 많다.

국제결혼특성을 살펴보면, 결혼당시 연령이 베트남 부인들이 가장 어려서 21.6세이고 중국 조선족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나라 출신들은 28~29세정도이다. 중국 조선족 부인은 결혼당시 연령이 34세이다. 한국인 남편들의 결혼당시

연령은 평균 37.6세인데, 중국 조선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결혼당시 나이가 42세로 다른 나라 출신 여성과 결혼한 남편들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인 경우 부부간 연령차가 출신 국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베트남 부인의 경우 17.3세로 부부간 연령차가 가장 크고 일본 부인의 경우 2세로 가장 작다. 다른 한편,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부부의 경우 결혼 당시 평균 연령이 남편 37세, 부인 34세로 부부간 연령차가 약3세 정도난다. 외국인 남편의 출신 국적별로 보면 중국출신 남편들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출신 남편들보다 결혼 당시 연령이 3~4세 높은 편이다. 부부간 연령차도 중국출신 남편들이 3~4세 차이인데 비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출신 남편들은 평균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거나 부인이 오히려 나이가 많게

<표 2> 조사대상자의 출신국적별 한국이주 및 국제결혼 특성

	여성 결혼이민자(외국인 부인)								남성 결혼이민자(외국인 남편)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전체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파키 스탄	방글라 데시	전체
<b>입국시기(%)</b>													
'95년이전	1.2	1.8	35.9	1.0	1.5	5.4	5.6	6.4	8.2	5.1	6.3	8.6	7.4
'04년이후	44.3	57.7	5.7	76.0	31.3	41.1	24.1	43.5	35.1	38.5	9.4	25.7	30.0
<b>거주기간(개월)</b>	46.2	36.4	117.9	24.9	56.0	53.9	63.4	53.3	61.6	55.7	70.8	74.8	64.2
<b>입국목적(%)</b>													
결혼	74.5	67.3	84.0	95.2	91.0	57.1	64.8	76.4	23.7	30.8	3.1	2.9	18.2
취업	12.2	14.3	-	2.9	6.0	28.6	18.5	10.9	39.2	48.7	65.6	74.3	51.2
친척·친지방문	3.9	3.0	1.9	-	-	3.6	5.6	2.7	13.4	15.4	3.1	-	9.9
회사업무·개인사업	5.5	8.9	-	1.0	1.5	5.4	9.3	4.8	9.3	5.2	18.8	14.3	10.9
기타	3.9	6.5	4.2	1.0	1.5	5.4	1.9	5.2	14.4	-	9.4	8.5	9.8
<b>결혼당시연령(세)</b>													
본인	33.7	29.3	28.2	21.6	26.8	28.2	28.2	29.2	37.5	39.2	33.0	34.9	36.7
배우자	41.6	37.6	30.2	38.9	36.0	35.0	35.0	37.6	33.2	35.5	34.1	34.6	34.1
<b>부부연령차(세)</b>	7.9	8.3	2.0	17.3	9.2	6.8	6.8	8.4	4.3	3.7	-1.1	.3	2.6
<b>결혼유형(%)</b>													
부부초혼	47.1	63.7	96.2	80.8	88.1	76.8	87.0	69.4	49.0	47.5	43.8	54.3	48.8
배우자재혼	6.3	10.1	2.8	19.2	7.5	10.7	5.6	8.6	13.5	2.5	28.1	25.7	15.8
본인재혼	10.6	7.1	-	-	1.5	7.1	3.7	5.7	6.3	12.5	12.5	5.7	8.4
부부재혼	36.1	19.0	.9	-	3.0	5.4	3.7	16.3	31.3	37.5	15.6	14.3	27.1
<b>결혼기간(년)</b>	3.3	2.6	11.1	2.0	4.7	3.4	4.6	4.2	2.8	3.1	3.0	2.5	2.8
시례수(명)	255	168	106	104	67	56	54	810	97	39	32	35	203

나타난다. 2006년도 국내 결혼에서 재혼율이 22.8%인 것을 감안하면(통계청, 2007), 국제결혼의 재혼율이 높은 편이다. 즉,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경우 재혼율이 30.6%,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은 51.2%이다. 특히 중국 조선족 출신 남성이나 여성의 재혼율이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결혼 기간은 일본 부인이 가장 길어서 11년이며, 베트남 부인이 가장 짧은 2년이다. 외국인 남편의 평균 결혼기간은 2.8년으로 외국인 부인에 비해 짧은 편이다.

### 3.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와의 심리적 적응 수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표 3> 참조). 외국인 부인이 우울증후군(평균 1.46)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이 외국인 남편(평균 1.37), 한국인 부인(평균 1.32), 그리고 한국인 남편(평균 1.26) 순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나라인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이 한국인 배우자보다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다. 기존연구 결과에서처럼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우울증후군 조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우울증후군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결혼이민자들 뿐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1)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

<표 4>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수준이 앞서 연구 모형에서 논의했던 설명변인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고려한 이주당시연령, 교육수준, 출신국가, 그리고 가구소득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회귀모형 I 참조), 출신국가와 가구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필리핀인 부인들이 우울증후군을 가장 높게 지각하며 일본인 부인들이 가장 낮게

<표 3> 국제결혼 부부의 심리적 적응 수준 비교

	외국인 부인	한국인 남편	외국인 남편	한국인 부인
우울척도 평균(표준편차)	1.46(.56)	1.26(.44)	1.37(.46)	1.32(.50)
내적일관성계수 ( $\alpha$ )	.89	.89	.91	.91
사례수	810	425	203	105



지각한다. 기준집단인 중국 조선족 부인들에 비해 필리핀인 부인이나 일본인 부인의 우울증후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일본인 부인이 다른 나라 출신들보다 우울증후군을 덜 경험한다는 결과는 베트남인과 중국인 부인들과 우울 증상을 비교했던 차승은·김두섭(2008)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주 당시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다른 한편, 가구소득수준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증후군에 영향을 주는데, 가구소득이 200만원이 안 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200만원 이상인 결혼이주여성들보다 우울증후군을 더 많이 경험한다.

<표 4>의 회귀모형Ⅱ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국제결혼이주관련 특성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결혼 전에 들었던 남편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많을수록, 현재의 생활수준이 본국에서의 생활수준에 비해 나이지 않았을 때 우울증후군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한국으로 혼인이주를 해오기 전에 한국인 남편과 한국생활에 대해 했던 기대가 어긋나거나 충족되지 못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부부간 연령차가 클수록 문화적응과 함께 세대적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이주기간에 따른 심리적 적응수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번 국제결혼이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초혼에 비해 특별히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모형Ⅲ은 가족생활스트레스원으로 부부 및 자녀관계, 부모관계에서의 고민과 경제적 고민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남편이 부인의 외출을 못하게 하고, 신분증을 빼앗거나 생활비 또는 용돈을 안주거나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할수록,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을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은 낮아진다. 또한 한국인 남편과 살면서 문화차이를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일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낮다. 자녀나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일로 인한 스트레스는 외국인부인의 심리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sup>4)</sup>,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향을

4) 자녀의 출산이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차승원·김두섭(2008)의 연구결과와 시부모와의 동거자체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현 남편과 사이에 난 자녀와 동거여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후군을 비교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남편의 전부인과 사이에서 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기가 낳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분석한 결과, 남편의 전부인 자녀와 동거할 때 우울증후군이 약간 높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다.

<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 결정요인

설명변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회귀	회귀	회귀	회귀	회귀	회귀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모형 VI
상수		1.430***	1.611***	1.975***	1.716***	1.722***	1.906***
개인 특성	이주당시연령	.002	.002	.002	.001	.000	.000
	교육수준	-.004	-.007	-.005	-.006	.000	-.006
	출신국더미 <sup>1)</sup> _중국한족	-.025	.011	.001	-.046	-.022	.007
	출신국더미_일본	-.188**	-.271**	-.378***	-.229**	-.177*	-.373***
	출신국더미_베트남	-.063	-.033	-.087	-.120	-.077	-.107
	출신국더미_필리핀	.171*	.143+	.048	.117	.119	.054
	출신국더미_몽골	-.062	-.035	-.141+	-.067	-.070	-.115
	출신국더미_태국	-.049	-.072	-.153+	-.108	-.065	-.163*
	월가구소득더미 <sup>2)</sup>	.122**	.080+	.062	.095*	.123**	.006
	월가구소득더미_모름	.108	.096	.008	.087	.099	-.013
국제 결혼 이주 특성	한국거주기간		.001				
	결혼유형더미 <sup>3)</sup> _부초혼남재혼		-.003				
	결혼유형더미_부재혼남초혼		-.111				
	결혼유형더미_부부재혼		.038				
	부부연령차		.001				
가족 생활 적응 스트 레스 원	남편정보속임		.187***				.089**
	이민기대충족(생활수준변화)		-.063**				-.010
가족 생활 적응 스트 레스 원	부부_관계만족도			-.200***			-.170***
	부부_남편통제			.077+			.074*
	부부_남편폭력			.043			
	부부_이혼고려			.363***			.355***
	부부_문화차이지각			.123**			.117**
	자녀일 스트레스			.032			
	사부모일 스트레스			.016			
사회 생활 적응 스트 레스 원	친정부모일 스트레스			-.037			
	가족경제문제 스트레스			.080**			.058**
	한국어수준				-.020		
	각종기관이용경험				.016		
	교육서비스이용경험				.025*		.023**
사회적 지원	단체나 모임참여				.022		
	일만족더미 <sup>4)</sup> _미취업				-.171		-.032
	일만족더미_보통				-.045		-.016
신체 적응	일만족더미_만족				-.321*		-.161
	속마음터놓을 사람					-.025	
신체 적응	이웃지원					-.033	
	본국가족지원					-.056**	-.007
신체 적응	건강안 좋음						.085***
	Adj. R <sup>2</sup>	.023**	.074***	.229***	.047***	.034***	.269***
사례수		786	786	786	786	786	786

+ p<.10 \* p<.05 \*\* p<.01 \*\*\* p<.001

주1) 출신국더미는 중국조선족이 기준집단임.

2) 월가구소득더미는 200만원이상이 기준집단임.

3) 결혼유형더미는 부부모두 초혼인 경우가 기준집단임.

4) 일만족더미는 일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인 경우가 기준집단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제문제로 스트레스를 크게 느낄수록 우울증후군을 지각하는 정도도 높아진다.

회귀모형IV에서 고려한 사회적응스트레스원 가운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 부부관계 증진 교육 등 교육서비스를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 적응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앞서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이용경험이 많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깊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적극적 의지는 이민생활로 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보다 잘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교육서비스 이용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차승은·김두섭(2008)에서도 발견되는데, 교육 및 문화센터, 친목, 종교모임, 자원봉사활동, 자녀와의 모임 등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베트남부인들일수록 우울증상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사회활동 참여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차별에 노출되고,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고자하는 적극적 소망이 실제와 괴리를 느끼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이런 해석을 확인하여 볼 수 있는 추가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하며,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하게 된 동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취업은 매우 중요하다.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취업여부와 일을 하는 경우 일에서 얻는 만족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에 대해서 불만족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해 만족하는 여성들이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은 편이다. 일에 불만족하는 이주여성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거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수준인 이주여성 간의 심리적 적응수준을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음에는 각종 스트레스원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사이에서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간접적인(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 분야 연구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지원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회귀모형V가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사회적 지원 변인들 가운데 본국 가족과의 긴밀한 접촉유지만이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민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적

응 부담을 더 잘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모형VI에서는 앞서 논의한 다섯 회귀분석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설명변인들과 결혼이주여성의 현재 건강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 변인의 27%가 이 회귀모형VI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회귀모형VI에서 고려한 기타 모든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은 결혼전 남편의 정보속임, 부부관계만족도, 남편의 통제, 이혼에 대한 심각한 고려 경험, 부부간 문화차이 지각, 경제적인 스트레스, 교육서비스 이용경험 및 현재 건강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결혼전에 남편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실제와 일치했을수록,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이 부인을 통제하는 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부간 문화차이를 크게 지각하는 요인이 없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적게 할수록, 현재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신건강상태도 양호하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은 이 연구에서 고려한 국제결혼이주특성, 가족생활스트레스원과 여타 사회생활스트레스원 및 사회적 지원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의 이민생활적응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던 사회적 지원 효과가 이번 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서는 통계적 유의도를 얻고 있지 못하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발견은 회귀모형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출신국적 효과가 회귀모형VI에서 고려한 여타의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통계적 유의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인 부인들이 중국 조선족 부인들보다 심리적 적응수준이 더 높으며, 태국인 부인들 역시 그러하다. 회귀모형I에서 중국 조선족 부인들보다 심리적 적응수준이 낮았던 필리핀 부인들이 회귀모형VI에서 여타 변인들을 통제한 다음에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도를 얻지 못했다. 이는 곧 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인들이 반영하지 못한 국가적, 문화적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 2) 남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

<표 5>는 남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모형I에 따르면 몇 살에 이주를 하였는지, 교육수준의 높고 낮음이 결혼이주남성의 심리적 적응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신국적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유사하게, 가구소득 수준이 200만원 이하로 낮은 남성결혼이민자들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들보다 우울증후군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혼이주특성과 관련하여 남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한국거주기간이나 초·재혼여부, 부부 연령차에 따른 심리적 적응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이민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이민동기가 본국에서보다 향상된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을 통하여 충족되었을 때는 그렇지 못했을 때에 비해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난다(회귀모형II 참조).

회귀모형III에서는 가족생활적응스트레스가 외국인 남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부관계와 관련해서는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외국인 남편들이 그런 적이 없는 남편들에 비해 우울증후군을 보다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우울증후군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 자녀일,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일로 인한 스트레스는 외국인 남편들의 심리적 적응에 차이를 가져올 만큼 통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생활적응스트레스원이 외국인 남편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회귀모형IV에서 고려한 사회생활적응스트레스원 가운데 각종 기관이용경험과 일에 대한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일에 대해 불만족하는 외국인 남편들보다 만족하는 외국인 남편들이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등 각종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많은 외국인 남편들일수록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향을 가진 사람이고 따라서 심리적 적응수준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높을 것이라고 가정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심리적 적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해석한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각종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관을 찾게 되는 것인가를 고려해본다면 본 연구에서 당초에 가정

<표 5> 남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 결정요인

설명변수		비준화된 회귀계수					
		회귀모형 I	회귀모형 II	회귀모형 III	회귀모형 IV	회귀모형 V	회귀모형 VI
상수		1.323***	2.019***	1.519***	1.806***	1.177***	1.598***
개인 특성	이주당시연령	.004	.002	.003	.007	.004	.003
	교육수준	-.012	-.023	.000	-.011	-.013	-.008
	출신국더미 <sup>1)</sup> _중국한족	-.084	-.078	-.158+	-.082	-.093	-.132
	출신국더미_파키스탄	-.073	-.053	-.138	-.110	-.040	-.085
	출신국더미_방글라데시	-.016	.005	-.098	-.085	-.025	-.118
	월가구소득더미 <sup>2)</sup>	.140+	.097	.055	.026	.154*	-.005
국제 결혼 이주 특성	한국거주기간		.000				
	결혼유형더미 <sup>3)</sup> _부초혼남재혼		-.175				
	결혼유형더미_부재혼남초혼		-.126				
	결혼유형더미_부부재혼		.025				
	부부연령차		.002				
	이민기대충족(생활수준변화)		-.128**				-.069+
가족 생활 적응 스트 레스 원	부부_관계만족도			-.131*			-.095
	부부_이혼고려			.643***			.645***
	부부_문화차이지각			.054			
	자녀일_스트레스			.022			
	장인장모일_스트레스			.044			
	본인부모일_스트레스			-.074			
	가족경제문제_스트레스			.112**			.089*
사회 생활 적응 스트 레스 원	한국어수준				-.097		
	각종기관이용경험				.128*		.094*
	교육서비스이용경험				-.022		
	단체나 모임참여				-.008		
	일만족더미 <sup>4)</sup> _미취업				.033		-.169
	일만족더미_보통				-.162		-.235+
	일만족더미_만족				-.336*		-.290*
사회적 지원 신체 적응	숙마음터놓을 사람					-.018	
	본국가족지원					.061+	.048
	건강안 좋음						.102**
	Adj. R2	.004	.035+	.168***	.054*	.001	.263***
	사례수	194	194	194	194	192	192

+ p<.10 \* p<.05 \*\* p<.01 \*\*\* p<.001

주1) 출신국더미는 중국조선족이 기준집단임.

2) 월가구소득더미는 200만원이상이 기준집단임.

3) 결혼유형더미는 부부모두 초혼인 경우가 기준집단임.

4) 일만족더미는 일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인 경우가 기준집단임.

했던 것처럼 이 변수가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에 적극적 참여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이나 기타 사회복지 기관을 찾아야할 필요를 느끼게 하

는 한국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 기관이용경험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수준도 낮아지는 것이 아닌 가 추론해본다<sup>5)</sup>.

사회적 지원이 외국인 남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속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외국인 남편들의 심리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회귀모형V 참조). 다른 한편, 본국가족과 자주 연락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남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결혼이민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부정적인 적으로 나타난다. 즉, 본국가족과 접촉이 빈번할수록 남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조사에 응한 남성결혼이민자들 가운데 약26%가 현재 본국가족의 생계책임자라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정기선 외, 2007: p. 334), 본국가족과의 잦은 접촉이 가계부양자로서의 부담을 더욱 더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 아닌 가 추론해보지만, 실제 본국가족과의 잦은 접촉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경험적 증거가 현재로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접촉빈도뿐 아니라 접촉의 내용까지도 함께 파악해야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마지막으로 회귀모형I부터 회귀모형V까지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심리적 적응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설명변인들과 신체적 적응의 일환으로서 현재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구성한 회귀모형VI을 분석한 결과, 이민 후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이민기대가 충족될수록,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을수록,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적게 받을수록, 각종 기관이용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일을 하면서 만족할수록, 자신의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남편일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 VI.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그들의 정신건

5)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취약성과 각종 기관 이용경험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논평자의 제안에 따라, 남성 결혼이민자의 현재 가구소득수준, 취업여부 등과 기관이용율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 각종 기관이용율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상태나 취업상태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추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 수준을 통해 가늠해봄으로써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이민생활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사회문화적으로 뿐 아니라 심리·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적응을 요구하는 스트레스유발 생애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이주는 가족 내 생활에서조차도 상당한 문화적, 정서적 적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민보다 더 많은 적응스트레스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분석결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배우자들보다 우울증후군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남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남성결혼이민자와 여성결혼이민자들 간에 비교해보면, 결혼이주를 하면서 기대했던 생활수준향상의 욕구가 충족될수록, 가족이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을 정도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을수록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혼이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결혼이주 여성과 남성간의 심리적 적응수준 결정요인에서 차이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수준은 남편의 통제, 부부간 문화차이 지각, 남편과의 관계만족도와 같은 가족생활적응스트레스원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결혼이주남성은 일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직장과 관련한 문제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영향은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주남성들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그 영향력은 결혼이주남성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 밖에 개인적 요인으로 이주당시연령이나 교육수준, 국제결혼이주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로 한국거주기간이나 결혼유형, 부부연령차, 부부이외의 가족관계스트레스, 단체나 모임참여 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이 남녀 결혼이민자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현재까지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관심이 이들의 일상생활과 가족생활에서의 적응지원과 복지지원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유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들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자의 이민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더 요구되며, 남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취업활동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족생활에서 부부간 서로의 출신 문화차이에 대



한 이해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자들의 본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학계의 노력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켜야한다고 이 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다문화컨텐츠에 대한 우리의 이해수준은 최근 다문화담론의 열기 속에서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설명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우리의 타문화 이해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이 곧 다문화가정의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다문화가정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연구관심이 촉구된다.

### <참고문헌>

- 고정자 · 김갑숙 (1999)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7(6): 59-76.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광일 · 김재환 ·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민정 (2008) “국제결혼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 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 41(1): 51-89.
- 김병석 (2000) “호주 이민의 배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NSW거주 한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2007) “남편의 아내모국문화이해노력과 심리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7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김이선 · 장혜경 · 김혜영 · 양명희 · 최은영 (2007)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연구》. 여성가족부.

김이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소통경험을 통해 본 정신건강의 역동성.”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김태현 · 김동배 · 김미혜 · 이영진 · 김예순 (1999)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61-81.

민경자 (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책지원 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미경 · 지승희 · 조은경 ·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석현호 · 이정환 · 이해경 · 정기선 (2007) 《해외 한국기업과 현지인 노동자: 중국 및 동남아시아》. 서울: 집문당.

석현호 · 정기선 · 장준오 (1998)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9집: 집문당.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설동훈 · 이해경 ·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설동훈 ·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안효자 (2008) “일개시 놓여준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4): 383-391.

오성희 · 박기환 (2007)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계 호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55-69.

이순형 · 문무경 · 최연실 · 이숙정 · 정하나 · 우현경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이영주 (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이승은 · 서현 (2008)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의 교육실태 및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9(4): 147-166.

- 왕한석·한건수·양명희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시대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 개발원.
- 정기선 (1994) “해외일시취업과 스트레스.” 《한국사회학》 28(가을호): 115-141.
- 정기선 (1999)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사회심리학회지: 산업과 조직》 12(2): 61-78.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9-102. 호안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조영달·윤희원·박상철·최영인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차승은·김두섭 (2008)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비교” 《한국인구학》 31(3): 131-157
- 통계청 (2007) 《2006년 혼인통계 결과》.
- 통계청 (2009) 《2009년 혼인통계 결과》.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W., U.C. Kim, T. Minde, and D. Mok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irman, Dina and Nellie Tran (2008) “Psychological Distress and Adjustment of Vietnamese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Association with Pre- and Postmigration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1): 109-120.
- Bhugra, D. (2003) “Migration and Depress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Suppl. 418): 67-72.
- Campbell, A., P.E. Converse, and W.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 Derogatis, L.R. (1977) *SCL-90: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I*. Baltimore: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Unit. Johns Hopkins University.
- Myers, D.G. and E. Diener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s* 6: 10-19.
- Furnham, A. and S. Bochner (1986) *Culture Shock*. London: Routledge.
- Han, G.S. (1999) "Immigrant Life and Work Involvement: Korean Men in Australia."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 5-29.
- Hurh, W.M. and K.C. Kim (1990) "Adaptation Stages and Mental Health of Korean Male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4(3): 456-479.
- Jasinskaja-Lahti, Inga, Karmela Liebkind, Magdalena Jaakkola, and Anni Reuter (2006) "Perceived Discrimination, Social Support Network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ree Immigrant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3): 292-311.
- Jon, S.H. (1997) "Conseq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Adult Korean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 Leavey, Gerard, Linda Rozmovits, Louise Ryan, and Michael King (2007) "Explanations of Depression among Irish Migrants in Britain." *Social Science & Medicine* 65: 231-244.
- Min, J.W., A. Moon, and J.E. Lubben (2005)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over Time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and Non-Hispanic White Elders: Evidence from a Two-wave Panel Study." *Aging & Mental Health* 9(3): 210-222.
- Rack, P. (1982) *Race Culture and Mental disorder*. London: Tavistock.
- Redfield, R., R. Linton, and M.J. Herskovits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149-152
- Zolobina, A., N. Basabe, D. Paez, and A. Furnham (2006) "Sociocultural Adjustment of Immigrants : Universal and Group-specific Predi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317-337.